

# 지역학교 사랑하는 교육풍토 造成해야

## 한내울포럼, 포천교육문제 토론회에서 밝혀

한내울포럼(공동대표 송순석 윤순옥 이희용)은 6월8일 오후7시 대진대학교 대학원 202호실에서 포천의 교육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지역학교를 사랑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우수한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영북종합고등학교 이용주 교감이 맡았으며 포천교육의 문제를 우수한 인재 유출, 신규교사 발령비율 높다, 지역대학 입학생 저조 등 3가지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문환 포천시 가족성상담센터 소장, 이희용 포천에총회장,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 회장, 하재인 포천시 초중고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이 참가했으며 경기도포천교육청 관계자와 한내울포럼 회원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송순석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주 영북종합고등학교 교감은 발제를 통해 포천의 우수한 인재가 유출되는 원인으로 자녀의 특기·적성과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능력이상으로 보는 시각과 도시중심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무조건 공부를 잘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리라는 학부모의 생각과 진학지도도 하고 있는 학교의 공명심,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지역학교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학생들 수준만 보고 학교를 낮게 평가하려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앞장서 지역학교를 사랑하는 교육풍토조성이 필요하고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교장의 사고전환이 요구되며 지역학교도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교사 발령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 교감은 포천지역은 주택, 교통, 교육, 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으며 2년 동안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전근할 수 있는 인사제도, 포천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사의 부족, 우수학생은 도시지역으로 나가고 기초학력부족 학생들이 주로 남아 학교교육에서 학습목표 접근과 생활지도가 어려워 장기근무 회피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규교사 발령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거에 어려움을 면제해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포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학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진대학교에 사범대학을 설치해 지역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대학에 포천지역 출신 학생들의 입학이 저조한 것은 사회통합상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시키면 입신출세를 시킬 수 있다는 마음에서 한 학생을 한하여 그리고 방학을 이용, 지역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를 이수한 학생이 지역대학에 입학하면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대해 이문환 포천시 가족성상담센터 소장은 우수한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학교중에서 선택하여 특성화된 학교로 육성하는 방안과 학부모, 학교졸업생, 지역사회기관이 연계하여 장학회 설립 등의 교육사업

을 추진하는 방안,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희용 포천에총 회장은 지역적 한계가 있는 학력수준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지역에 있는 대학교나 대학 각 학교에 일정비율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입학시키는 지역학생 입학 쿼터제를 지방자치단체나 시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과 또 예체능 특기생들의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연결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승호 포천시 야구협회장은 지역장학제도의 활성화, 지역학생 우선 입학 평가제, 지역학생 우선 특별전형 같은 획기적인 제도의 적용과 추진은 학생 및 시민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돌려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재인 포천시 초중고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은 포천 지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라적으로 우선 포천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 1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방법은 요즘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우수한 지역 중·고등학교를 벤치마킹 하여 방향을 설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포천교육청 관계자는 "포천에 경력 있는 교사가 내신을 기피하는 이유는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같은 조건인 남양주, 구리에 경력교사가 많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추천! 이야기 한마당

### 부부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보용 본지지원위원

한 여성이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새 부부들은 대화 너무 부족하다. 남편과 장단점을 다 나뉘라." 그 말대로, 그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서로 부족한 점을 하나씩 나뉘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주저하다 못해 "그러자!"고 했습니다. 곧, 아내 입에서 남편의 단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먹을 때 흐르르 흐르르 소리를 내고 먹는데, 주위 사람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교양 있게 드세요." 이제 남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턱에 대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 생각하는데, 남편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찬찬히 보니까, 옛날 연애하던 시절의 멋진 남편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결국 한참 있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오늘 날, 많은 아내들이 기대하는 남편이 이런 남편이 아닐까요? 남편도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화점 가서 바가지 쓴 것, 가스 불 켜놓고 잠든 것, 식당에 집 열쇠 놓고 온 것, 어디서 자동차들이 받고 온 것 등, 지적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적하지 않고,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배우자의 사명, 실과와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있지 않고, 실과와 실수를 덮어

주는 것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약점을 찾아보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어진 스파이(spy)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족한 파트(part)를 메워 덮어 주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어진 파트너(partner)입니다. 삶에 힘겨워하는 반쪽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있을 때, 나머지 반쪽이 주는 격려의 말 한 마디는, 행복한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경쟁하는 여야 관계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배우자를 깔으면 자기가 깔이고, 배우자를 높이면 자기가 높여집니다. 배우자를 울게 하면, 자기의 영혼도 울게 될 것이고, 배우자를 웃게 하면, 자기의 영혼도 웃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말해주는 유일한 메시지는 "나를 동반자로 존중하고, 좋은 대화 파트너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좋은 말은 천 마디를 해도 좋지만, 험뜯는 말은, 한 마디만 해도 큰 해가 됩니다. 가끔 배우자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 들어도, '시간의 신비한 힘'을 믿고, 감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을 한 번 절제하면, 그 순간, 예전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 저희 부부는 말합니다. "그것도 몰라? 우리 집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야!" 자녀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생생한 교육 현장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앞세워 사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 부부 및 자녀의 내일에 행복의 주단을 깔게 될 것입니다.

(문의 011-342-5834)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 기원

### 포천시 제52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포천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해 6일 청성공원 내 현충탑 경내에서 '제52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향군 단체장과 유족 및 국가유공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조국에 바친 보훈가족 여러분과 국가유공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 차원에서 이분들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현충일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폐회 후에는 포천반월아트홀에서 보훈



단체회원 및 보훈유공자, 봉사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했다.

한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현충일 추념행사 사회자의 묵념시작 구령에 맞춰 시내 일원에 민방위경보사이렌이 1분간 취명됐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 \*용경자의 세상읽기 7

#### 옆집 할머님

비가 내려 축축한 날이면 책 모자에 수건 둘러쓰고 호미질 하던 옆집 할머님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필순이 가까운데도 웃으실 때면 손을 모아 입을 가리셨고 우리 집에 오실 때에는 노크를 잊지 않으시던 고운 지채와 인자함으로 양반집 대머님의 향기가 가득 하셨던 분.

처음에 공장을 시작하고 뼈대한 살림살이로 힘겨워서 신랑한테 마구 잔소리를 퍼부어도 혼자만의 메아리였을 때, 내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옆집 할머님이 찾아오셨다. 나는 긴장해서 "어쩐 일 이세요?" 했더니 "이야기 보고 싶어서 왔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우리 아이에게 당신 주머니에서 사랑을 한 움큼 쥐어 주시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새벽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지를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예쁜 아기도 있지, 젊고 건강하지, 기술 좋은 서방님과 공부 잘하는 딸도 있잖아." 부러울 정도라 하시며 당신 이야기를 해주셨다. 젊어서 혼자 되셨고 자식 4남매를 먹이기 위해 당신은 굶기를 밥먹듯 했다고... 셋째 아들은 먼저 저 세상에 갔고 큰 아들은 신장암 수술중이라서 넓은 시골집에 혼자서 생활하신다고 하셨다. 가끔 시집간 딸이 찾아와서 맛있는 것을 잔뜩 사다 주신다고 자랑도 하셨다. 그리고 저녁에 당신 집에 초대해 주셨다.

보일러 기름이 아까워서 쪽방에 스탠드 하나 켜고 전기장판을

약하게 틀고 두툽한 이불을 깔아 놓고 계셨다. 낮에는 부엌거리 찾아다니시고 밤이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성경말씀을 벗삼아 주무신다고 하셨다.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불쌍해 보였다. 그분 앞에서 내 신세를 위로 받기란 사치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분은 행복해 하셨다. 큰 아들이 수술을 받게 되었고 든든한 손자도 군대를 제대해서 걱정 없으면서 자신만만해 하셨다. 오 하러 할때면 언제든지 놀러오라면서 사위가 사다준 사랑이랑 고급과자를 한 아름 내어주셨다.

할머님 말씀 중에 돈으로 잠깐의 행복을 살수는 있지만 금방 또 같증을 느끼게 되고 불행은 그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에서 온다는 것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다. 병치레가 잦았던 늦둥이 아들이

이제는 불 살이 살포시 퍼어올라 유치원 간다고 고물고물 피곤한 몸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무엇을 부러워하랴. 욕심을 버리니 세상행복이 모두 내 것이요. 만 샅의 품을 뽐내고 있는 대지의 풀들조차 행복해 보인다.

3년이 지난 지금 큰 아드님은 건강을 회복해서 농사일을 시작 하였고 그 옆에는 든든한 손자가 함께 있었다. 할머님은 여전히 하우스로 발로 일당 들일을 찾아 머리에 모자와 수건을 둘러쓰고 땀에 바지 복장으로 새벽이면 집을 나서신다.

그 걸음걸이의 끝에는 세상행복을 모두 가지신 듯 당당함이 한가득 쌓여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시인의窓

#### 사랑하는 너를 보내며

안유진(포천문인협회 회원, 포천시청 근무)

갈매기가 따뜻한 체온을 남기고 떠나가 버린 해변을 나 홀로 걷는다

떠나는 너를 붙잡지 못함을 원망하면서

모래 위에 수도 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썼다가는 지워 버리고 이제 그만 잊어 불란다

그런데 그제 가능했었어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잊는다는 게...

(감상노트)

이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처럼 항기로운 꽃이 또 있을까. 사랑은 모든 생명이 살아간다는 꼭 함께 할 아름다운 피터다. 행복의 유일한 느낌표다. 에너지의 원천이다. 사랑은 가슴에 그리는 한 폭의 수채화다. 사랑은 생명체가 딱짖기 하는 오르가즘의 극치다. 사랑은 결코 흥정하

지 않으며 저울에 달리지 않는다. 사랑은 생명의 마지막 고트머리에서 그냥 스러지는 바람이다. 오늘도 내일의 원형열차는 분홍꽃잎에 선다. 두 사람이 거기에 내린다. 꽃바람이 인다.

안 익 수(시인)



# 내부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업체



## 좋은 생각이 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바꾸세요

벽지, 장판, 페인트, 조명, 버티칼, 샷시, 마루공사, 화장실공사, 베란다 확장공사 등 가격에 자신있기에 무료 출장견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 호 : 대북 인테리어 하우스
- 대 표 : 유 병 호
- 주 소 : 포천시 선단동 82-14(☎031-542-8818)
- 홈 페이지 : www.daebokart.com
- 장안영업소 : 031-871-2002
- 경기상재 : 031-829-8901
- 방학영업소 : 02-954-1481
- 구리상재(주) : 031-529-5072~3

